Beautiful High Desert Life

코리안밸리

3

Mar. 2026



커버스토리:
식당으로 아메리칸드림 일군 박인석 박영희 부부

Korean Valley
March, 2026



온라인 뉴스
www.koreanvalley.net

매거진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koreanvalley.net/magazine

광고 문의: (213)503-3491

새로운 연결의 시작, '시니어 밸리 TV' 개국



안녕하세요. 코리안 밸리 독자 여러분,

시니어들의 실리콘 밸리를 꿈꾸는 유튜브 방송 '시니어 밸리 TV'가 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동안 매거진을 통해 텍스트로 나누었던 소식을 이제는 영상이라는 더 생생한 그릇에 담아보려 합니다.

시니어 밸리 TV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넘어, 지혜로 하나 되는 소통의 광장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갈 중심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Global Insight: 시니어 주요 뉴스 및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Lifelong Learning: 하이데저트의 고요하고 장엄한 풍광 속에서 길어 올린 인문학적 성찰을 나눕니다.
*Healing & Spirit: 성경 필사와 독서 모임, 힐링 에세이 등을 공유합니다.
*Community: 시대를 앞서가는 시니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시니어 밸리 TV는 여러분의 일상 속 다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구독: 유튜브 검색, "시니어 밸리 TV"**

395번 도로 2단계 확장공사 본격 시작

헤스페리아와 빅토빌을 관통하는 395번 도로(US Highway 395)의 2단계 공사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도 참조)**

카운티 교통국(SBCTA)과 주 교통국(Caltrans)이 주도하는 이번 2단계 공사는 총 4,185만 달러가 투입된다.

공사 구간은 빅토빌의 18번(팜데일 로드)에서 15번 프리웨이와 만나는 지점까지 총 7마일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양방향 차선 추가, 돌출형 중앙분리대 설치, 회전 차선 및 갓길 확장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도로변의 수풀과 잔해물 제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다.

395번 도로는 지역 간 고속도로이자 연방 주요 도시 화물 통로로 지정된 핵심 운송로다. 하루 평균 약 3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그중 17%가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으로 이루어져 있다.

33만 명 이상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번 도로확장 사업은 주요 화물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카운티 교통국은 "이 프로젝트는 카운티 내 물류 이동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공사 자금은 연방 및 주 정부, 지방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공사는 2029년 겨울쯤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HD행복한 교회에서 이웃초청 떡국잔치가 열렸다.



때 이른 봄? 조수아 트리 꽃이 활짝 피었다.

코리안 밸리 무료 구독
www.koreanvalley.net/contact
매주 수요일 카톡으로 주간 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광고 문의/ 액티브 시니어 기사 제보
문의: 213-503-3491(텍스트 혹은 카톡)
info@koreanvalley.net

작은 식당으로 일군 아메리칸 드림

LA 올림픽길에 작지만 유명한 식당이 있다. 소반식당.
봉준호, 박찬욱 감독, 배우 이병헌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은 물론, 지상사와 기업 대표들이 미국 출장길에 반드시 들르는 곳이다. 식당 하나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박인석(68)·박영희(67) 부부를 2월 초 피논힐 자택에서 만났다. 남편의 요리 솜씨도 솜씨지만, 아내의 넉넉한 인품이 오늘의 소반을 만든 또 다른 힘이라는 걸 대화 내내 느낄 수 있었다.



박인석 씨는 1997년 미국 땅을 밟았다. 중국 연길에서 이미 식당 세 곳을 운영한 베테랑 요리사였다.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에 한식당을 개설해 10년간 주방을 지킨 뒤, LA에서도 서라벌·박대감·무대포 등 내로라하는 한식당의 주방장을 거쳤다. 부부는 결혼 후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지금의 소반식당을 구입,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남편의 정갈한 손맛과 부인의 따뜻한 환대 속에 식당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딸에게 운영을 일임한 상태다. 부부는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만 거드는 반퇴 생활을 즐긴다. 피논힐 이층 통나무집에서 개 두 마리와 함께 시골 생활을 만끽 중인 인석 씨는 "공기 좋고 전망도 좋은 데다,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가슴이 다 시원해진다. LA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여기 사는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희 씨 역시 “데크에서 빅토빌 시내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사는 것이 별것 아닌데…”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소반식당의 명성은 문을 연 이후 늘 한결같다. 언론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한국의 KBS 설날특집, 이만기의 동네



한바퀴에도 방송을 탔다. 미국 유명쉐프가 진행하는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한다. 미식가들에게 영향력 있는 ‘Eater’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LA 타임스의 전설적인 비평가 조나단 골드가 극찬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인석씨는 한국 문화원 의뢰로 롱비치 요리학교에서 한식을 강의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에는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이 다녀갔고,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한 당일 저녁 이곳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윤여정을 비롯한 유명 배우들과 한국의 기업 대표들이 스쳐 가는 식당이 아닌 단골집으로 삼는 이유는 분명하다. LA 타임스가 매년 선정하는 101대 맛집에 12년간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올해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오른 곳, 그 맛을 이미 고객이 증명했기 때문이다.

월 초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OST '골든(Golden)'을 작곡하여 제68회 그래미상을 수상한 팀의 파티를 도맡아 진행했다.

이민 2세인 딸이 운영에 합류하면서 주류세계로부터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대표메뉴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 대표 메뉴를 외국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하자 매출이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간장게장의 비결은 신선한 게를 소량씩 구입해 24가지 양념을 넣고 다섯 시간 고아 낸 소스를 부어 만드는데 있다. 짜지 않고 깔끔한 맛 덕에 미국인들도 한번 맛보면 다시 찾는 일품 요리가 됐다. 갈비 역시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세 번 양념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한다. 은대구조림 역시 고객들이 자주 찾는 단골메뉴다.

음식 맛의 핵심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 낸 육수에 있다. 조미료를 일절 쓰지 않고 집밥처럼 건강하게 조리하는 까닭에 당뇨 환자들도 즐겨 찾는다. 퓨전을 거부하고 할머니 손맛을 고집하는 인석 씨의 철학은 가격에서도 드러난다. 물가가 올라도 딸과 남편의 고집으로 예전 가격을 지켜온 것, 그것이 이 식당을 명품으로 부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다.

부부는 이제 피논힐에서 새로운 꿈을 그린다. 외국 젊은이들이 머물며 한류 음식을 배우는 한식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떡볶이와 김치를 직접 만들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포부다. 세계 한식화에 뜻을 품은 딸과 나란히 걷는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지금 이 순간도 현재진행형이다. **[J]**

ITDA

"인생 후반전,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시간"

잇다 아카데미

- 개강: 3/3(화). 10am-1:40pm. 12주간
- 장소: HD Grace Vision Center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 등록비: $100/12weeks

상담 문의

213-568-9063
213-200-8829

1교시

- 컴퓨터 (Computer)
- 수화(Korean Sign Language)
- 스마트폰 (Smartphone)

2교시

- 스케치 (Sketch, Dessin)
- 기타 (Guitar)
- 워십댄스 (Worship Dance)

점심시간

3교시

- 합창 (Choir)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 23:13-14)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계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지역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HD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빅토밸리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이제 그 거룩한 사명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임직식을 거행하며,
우선 지면으로 모시는 글을 올립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 해 주세요."

HD은혜교회

INVITATION

HD은혜교회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자

임직감사예배

- 장로 | 김진송
- 안수집사 | 안건영, Andrew Sherman
- 권사 | Liliana Sherman

일시 2026년 3월8일. 오후 4시

장소 HD은혜교회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빅토빌 한인 목사회

(회원 소속 교회)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담임목사: 홍정택 주일예배:오전11시 13878 Apple Valley. 909-913-4159	**햇빛 재단** 마약, 알콜, 도박 등 중독자 치료와 상담 대표: 김영일목사 213-432-9791	**빅토밸리 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세일 공로목사: 강성수 주일예배: 오전 11시 9191 Deep Creek Rd. 760-879-5968	**나눔동산교회** 담임목사: 임성필 원로목사: 류창렬 주일예배: 오전 10시 4166 Nielson Rd. 714-313-8498	회장: 홍정택목사 (909-913-4159) 총무: 백성현목사 (760-694-3735) 회계: 임성필목사 (714-313-8498)
주의 사랑 선교센터 공동담임: 백성현 & 백석영목사 주일예배: 정오12시 11373 Oasis Rd. 760-694-3735	**열린문 기도원** 담임목사: 우정은 주일예배: 오전10시 5705 Stone Basin Rd. Phelan 760-249-585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송국 주일예배: 오전11시 16165 Walnut St. Hesperia 760-887-4848	**신유 기도원** 원장: 손 다윗 목사 주일예배: 오전 10시30분 5280 Oil well Rd. Phelan 714-750-7244	**필랜성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권 주일예배: 오전 10시30분 9767 Sierra Vista Rd. Phelan 213-503-9943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God Driven, Bible Driven, Church Driven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PCA)

빅토밸리 복음교회

Victor Valley Gospel Church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엡 1:23)

섬기는이: 강성수 공로목사/ 권세일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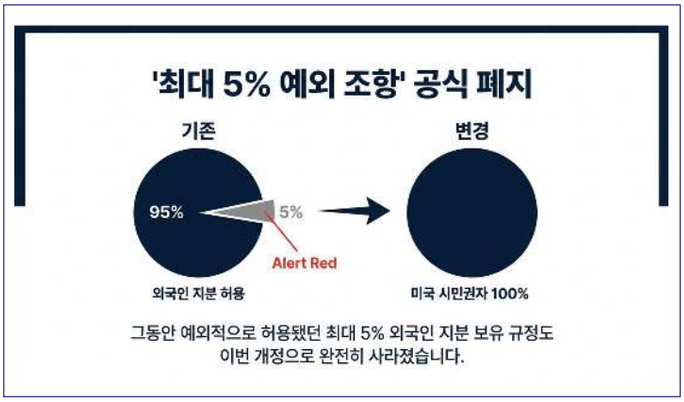


모임시간: 주일예배 오전11시/ 수요기도회 오후7시/ 금요새벽기도 오전 6시/ 화요말씀반 오전10시

9191 Deep Creek Rd. Apple Valley, CA 92308 (760)879-5968. seil70@naver.com

SBA론 3월부터 시민권자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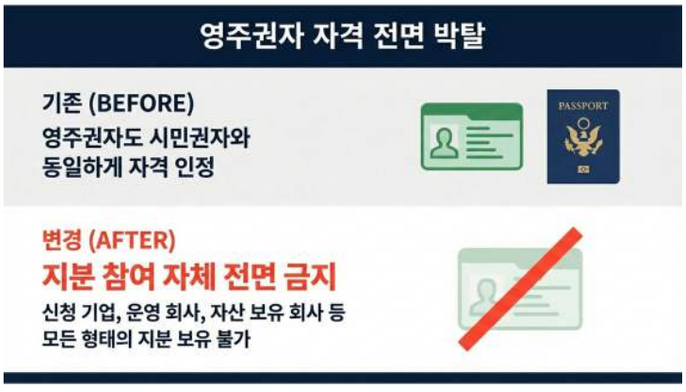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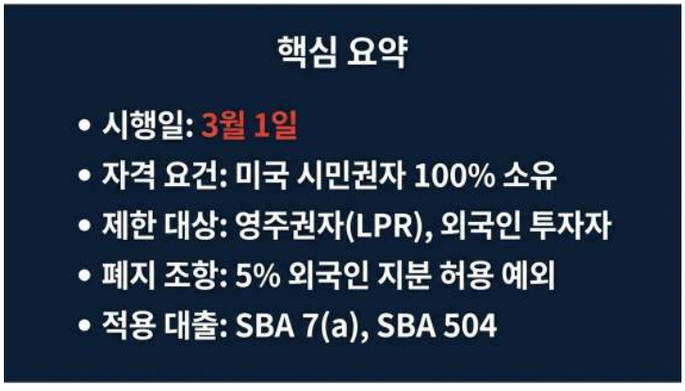












건강한 노후를 위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메디케어 보험

건강보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65세 신규 가입자를 위한 가입신청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Part C (HMO) 가입자를 위한 추가 혜택



15423 Anacapa Rd. Victorville, CA 92392
(서울가든 코리아 바베큐 몰)



이정순

전 은행 지점장 (Bank of Hope)
현지 (필랜) 거주 에이전트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문의전화: 213-505-3491
jungsoon.lee@bridgeoneins.com

Lic# 4459679

- HQ: ORANGE, CA
- BUENA PARK, CA
- CYPRESS, CA
- DIAMOND BAR, CA
- FULLERTON, CA
- GARDEN GROVE, CA
- LAGUNA HILLS, CA
- LOS ANGELES, CA
- SANTA CLARA, CA
- VICTORVILLE, CA
- LAS VEGAS, NV
- PALISADES PARK, NJ
- BEAVERTON, OR
- CENTREVILLE, VA
- FEDERAL WAY, WA

뉴욕의 '망치'와 서울의 '펜'... Z세대의 '아날로그 반격'



작년 9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공원. 앳된 Z 세대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바닥에 던지고 망치와 돌로 산산조각 냈다. "사과는 먹는 것이다(Apples are for eating)!" 광장에 울려 퍼진, 애플 컴퓨터를 조롱하는 외침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사회 고발이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서울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그들은 후미진 골목의 독립서점이나 조용한 북카페에 앉아 두꺼운 종이책을 펼쳤다. 마음에 드는 문장을 노트에 쓰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했다.

디지털 과잉이라는 시대적 중병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대비가 흥미롭다. 뉴욕이 '망치'를 들었다면, 한국에서는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미학적인 문화 현상으로 발현됐다.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멋지다는 의미의 '힙'이 결합된 이 신조어는, 활자를 읽고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세련된 자기표현으로 여기는 세태를 뜻한다. 네이티브 스피커인 딸에게 '힙'이 뭐냐고 물었더니 '쿨'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최근 10년 사이 독립서점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짧은 쇼츠 영상에 찌들은 뇌를 구하고자 하는 아날로그의 반격이다. 겉멋으로만 하는 과시적 독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아무렴 어떤가. 타임지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허영이 영어 공부의 계기가 되듯, 시작이 무엇이든 활자에 머무는 시간은 그 자체로 값지다.

더욱이 텍스트힙 열풍이 '필사'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에 무려 7만 5천 명이 몰렸다고 한다.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는 이를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시각 정보의 독재'에 맞서 손의 촉각이 균형을 맞추려는 '감각의 복권'이라고 진단했다.

필사운동의 주체가 1020의 Z세대라는 점이 특이하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한 몸이었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펜을 들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종이와 펜은 원초적인 기록 툴이다.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와 펜은 불편할 수 있다. 요새 누가 편지를 써서 부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우체통 앞에서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편지를 뜯는 기쁨, 이런 것들이 연애하던 시절의 감동이 아니었을까.

나도 작년 7월부터 성경 디지털 필사운동을 하고 있다. AI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이핑 연습 겸 성경을 깊이있게 읽자는 운동이다.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타블렛에 손글씨를 써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물론 액정화면에 글을 쓰는 것이라 종이질감에는 못따라 가지만, 타이핑을 하고 난 후에 쓰는 손글씨는 또 다른 맛이 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정재승 교수의 서평 – "우리가 도달한 현대 문명의 정점, 그 안락한 공간에서 잃어버린 감각과 생존의 본능을 되짚는 여정이다. 알래스카의 거친 바람 속에서, 고요한 산악 사냥 속에서, 이스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온도와 음식, 연결과 안전이라는 틀을 벗고, 오래된 불편함의 가치를 되살린다." – 을 보고 바로 책을 구입했다.

뉴욕의 요란한 망치질과 서울의 사각거리는 펜 소리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 정확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편리함이라는 디지털의 환상 뒤에 가려진 인간 본연의 어떤 갈망이다.
요즘,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분양받듯, 서가 한 칸을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공유책방이 뜬다고 한다. 책을 읽고 진열해서 팔기도 하고, 손비누 같은 수제품을 팔기도 하는 모양이다.

아날로그의 반격이 독서와 필사, 공유서점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다. 누가 Z세대를 철부지라 하는가. 젊은 세대들이 불편함을 참고 디지털 세계의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면 AI와 공존해야 할 미래가 그리 비관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어본다.**[J]**

[이 글은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kcmusa.org)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로컬 자영업자를 위한 올인원 서비스

광고+홍보+마케팅
복잡한 웹페이지 한장에 완성!

매출과 연결되는 핵심기능 1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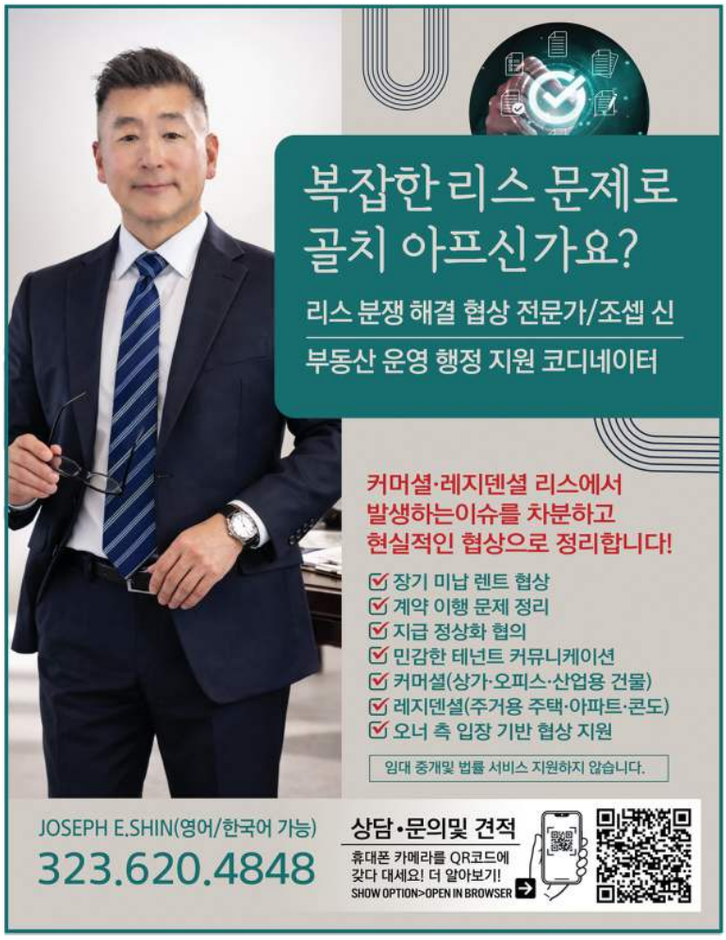
01 광고 디자인+QR코드 생성및 스캔
02 인트로 비디오 영상(AI제작/30초)
03 전화걸기(CRT) 버튼/모바일용
04 실시간 쳇팅/카톡연결 버튼
05 구글맵 버튼/리뷰 관리
06 결제버튼/페이팔,젤,벤모 안내
07 제품및 구독가격 리스팅
08 제품 브로셔/회사 브로셔
09 이벤트/RSVP 예약관리
10 문의 페이지/고객정보 관리

서비스 플랜 3가지

A 스탠다드/핵심기능 5가지
B 프리미엄/핵심기능 10가지
A+B 월구독 관리형

견적및 상담/레베카 신
323.774.9144
10355 JOSHUA ST. OAK HILLS CA,92344

모바일 카메라를 QR코드에! 웹페이지 바로가기



복잡한 리스 문제로 골치 아프신가요?

리스 분쟁 해결 협상 전문가/조셉 신
부동산 운영 행정 지원 코디네이터

커머셜·레지덴셜 리스에서
발생하는이슈를 차분하고
현실적인 협상으로 정리합니다!

- ☑ 장기 미납 렌트 협상
- ☑ 계약 이행 문제 정리
- ☑ 지급 정상화 협의
- ☑ 민감한 테넌트 커뮤니케이션
- ☑ 커머셜(상가·오피스·산업용 건물)
- ☑ 레지덴셜(주거용 주택·아파트·콘도)
- ☑ 오너 측 입장 기반 협상 지원

임대 중개및 법률 서비스 지원하지 않습니다.

JOSEPH E.SHIN(영어/한국어 가능)
323.620.4848

상담•문의및 견적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갖다 대세요! 더 알아보기!
SHOW OPTION>OPEN IN BROWSER

완벽시공의 대명사 백스 조경









대형 중장비 보유
땅 정지 작업(클린업)
콘크리트 블럭
펜스/ 게이트
정화조 설치
조경공사 일체

라이선스(Class B #701232)
본드 있음
(714)797-9000/ (310)933-0005



대추나무 200그루 판매



필랜 기후에 적응된
팜추리 수 백그루 판매

한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게...매수 신고의무 강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026년 2월 현재,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거쳐야 하는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 자격과 한국 내 주소지,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 투자 목적의 원격 쇼핑식 매입을 제한하고,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의무화다. 외국인은 부동산 매입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금 세탁이나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성 거래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외국인 매수자는 매매계약서와 외국인 취득신고서 외에도 국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토지나 농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추후 상속이나 매도를 진행할 때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말소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등 한국 내 서류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반드시 외국인 신분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립공원 3곳, 올해부터 사전예약제 전면 폐지

국립공원 관리청은 올해부터 요세미티, 아치스**(사진)**, 글레이셔 국립공원 등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 3곳에서 사전 예약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외 관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과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로 예약제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관리청이 지난해 방문객 수와 주차장 이용 현황,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보다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해 기존의 차량 예약제와 시간별 입장 예약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은 올해부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해당 국립공원들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국은 성수기 등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교통 혼잡도에 따라 일부 구간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등의 탄력적인 현장 대응 조치는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시니어 재산세 면제안 통과될까?



2024 정책 브리핑

찬성 측 주장 2: 지역 경제 낙수 효과



절감된 세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소비되어 경제를 순환시킵니다.

주요 요약 (Executive Summary)

핵심 제안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 면제 추진

주요 쟁점

시니어 주거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vs.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주정부 세수 손실

현재 진행 상황

주무장관 승인 완료.
투표 회부를 위해 8월 4일까지 87만 5천 명 서명 필요.

Modern Policy Editorial

⚠ 반대 측 경고 1: 막대한 재정 손실

$200억

예상되는 연간 최대 세수 손실액

캘리포니아주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

반대 측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구멍으로 규정.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반대 측 경고 2: 공공 서비스 위축 우려

재산세는 지방 정부의 핵심 재원입니다.

교육 (Education)

공립학교 예산 삭감 위험.

안전 (Safety)

치안 및 소방 인프라 유지 난항.

특정 계층을 위한 혜택이 공공 서비스 전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odern Policy Editorial

찬성 측 주장 1: 시니어 주거 안정



>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기존 제도는 시니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

재산세 부담 제거 = 주거 안정 유지.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집을 잃거나 떠나는 것을 방지.

타 주 사례 비교



제안 측은 16개 주에서 이미 시니어 재산세 감면 제도가 안착되었음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의 도입 필요성 역설.

▲ 참고: 캘리포니아는 타 주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높아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



오클라호마주 대형산불...100만명 대피령

오클라호마주와 캔자스주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산림관리국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 수십 채가 전소되었고 전체 피해 면적은 30만 에이커를 넘어섰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레인저로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풍을 타고 오클라호마주 경계를 넘어 캔자스주까지 대규모로 번지고 있다. 피어오른 산불 연기가 위성으로도 관측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인근 주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산불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태다.
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은 강풍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커넥션 퀴즈〉

(4단어를 하나의 공통 키워드로 묶는 게임입니다.)

보리떡	다윗	우박	비둘기
까마귀	메뚜기	아벨	바구니
무지개	어린아이	모세	개구리
파리	아모스	물고기	방주

〈2월호 정답〉
-전통 장신구: 비녀, 노리개, 가락지, 족두리
-명절: 설날, 단오, 추석, 한식
-전통놀이: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국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트랙터 팝니다



- 브랜드: Kioti (made in Korea)
- 600시간 사용
- 상태: 거의 새것
- 에어컨, 라디오, 사방 유리, 방음시설 완비
- 판매가: $29,500
- 문의: 661-816-3659 제임스 리

방 렌트
빅토빌 새집



$450/$500/월
프리웨이, 마켓, 모든 편의점 0.9마일
문의: (714)833-4862

성경 필사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유튜브 검색: "시니어 밸리 TV"
www.bible-english.com

건강한 노후를 위한

메디케어 보험

건강보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유니티 • 보험

메디케어 신규가입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 65세 신규 가입자를 위한 가입신청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Part C (HMO) 가입자를 위한 추가 혜택



하이디 엄
760-239-9006
Lic# 0H94085



제인 림
760-364-0818
Lic# 0D60292



해나 백
714-290-4870
Lic# 0G78292



안 미 숙
213-477-3225
Lic# 0M23872



양 유 신
909-260-4861
Lic# 0G79468



유 민 예
213-407-8425
Lic# 0K36921



테레사 한
714-345-4791
Lic# 0M81950



그레이스 황
714-944-8012
Lic# 0G51446



이정순
213-505-3491
Lic# 4459679



오바마케어보험

샌버나디노 지역 전문

- 소득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 혜택 비교 분석 후 적합한 플랜 선택
- 주치의 선정과 병원 선택 도움

유니티 • 보험 15423 Anacapa Rd, Victorville, CA 92392 (서울 가든 코리아 바베큐몰)

의료비 부담 줄이는
시니어 이중 의료 혜택 안내

Dual Eligible이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컬(Medi-Cal/연방 메디케이드 Medicaid)을 함께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 자격

- ☑ 65세 이상 또는 장애로 메디케어 수급
- ☑ 저소득 기준 충족으로 메디컬(Medi-Cal) 수급
  → 두 제도를 모두 받으면 이중 의료 혜택 대상자(Dual Eligible)입니다.

☑ 주요 혜택

- 병원비·약값 부담 감소
- 코페이 지원
-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IHSS) 가능
- 주거 지원 프로그램 연계에 유리

📌 신청 접수처 (공식)

Medicare: https://www.ssa.gov/medicare
Medi-Cal(메디컬): https://www.benefitscal.com

☑ **안내** 이중 의료 혜택은 미국 공통 연방 제도이며, 주별로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KSBC Korean Senior Bridge Community
KOREAN SENIOR BRIDGE COMMUNITY
슬기로운 한인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정보채널
제작및 배포문의:323.774.9144
EDUCATIONAL INFORMATION ONLY
© KSBC | 본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